

이슈보고서

산업경제팀

VOL.2019-이슈-11 (2019.05.14)

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



CONTENTS

- I. 미중 추가 관세부과로 무역분쟁 재점화
- II. 중국의 추가 대응 전략
 - 1. 보복 관세 추가 부과
 - 2. 미 국채 매각
 - 3. 기타 비관세 장벽 강화

작성

선임연구원 김윤지 (3779-6677)
 조사역 홍성준 (3779-5709)



I. 미·중 추가 관세 부과로 무역분쟁 재점화

□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2,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인상(10→25%)

- 미국은 5월 10일 이후 미국으로 출발하는 **대중 수입품목 5,745개 2,000억 달러**에 대해 10%의 추가 관세율을 **25%로 인상**했으며, 추가로 **3,250달러**에 대해서도 '단기간내(shortly)' **25%를 부과**하겠다고 발표
- 품목별로 중국산 **통신장비, 컴퓨터회로, 가구, 자동차부품**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, 3,250억 달러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**휴대전화, 노트북, 장난감, TV 플라스틱 제품**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

□ 중국,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5~25% 부과

- 중국 국무원은 **600억 달러**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**5~10%에서 5~25%로 인상**한다고 발표(6월 1일 실시)
- 중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**2,000억 달러**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**10% 관세 부과**에 대응하여 **600억 달러**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**5~10% 관세**를 부과해 왔음.

II. 중국의 추가 대응 전략

1. 보복 관세 추가 부가

□ 대미 수입액 및 추가 과세 가능 품목 적어 맞대응 관세로는 한계

- 중국은 현재 농산물 등 총 **5,140개 품목** 가운데 절반가량인 **2,493개에 25%, 1,078개에 20%** 관세를 부과하며 나머지 974개, 595개 품목에는 각각 10%, 5%를 적용
- 이번 조치로 미국이 총 **2,500억 달러**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**25%의 추가 관세**를 적용한 반면,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**500억 달러**에 **25%**, **600억 달러**에



5~25%의 추가 관세를 적용해 직접 피해는 중국이 더 큰 상황

- 미국은 남은 약 3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도 25%의 관세를 매긴다고 밝힌 반면,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**1,551억 달러**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 품목이 **400억 달러** 안팎만 남아 관세 맞대응으로는 한계

2. 미 국채 매각

□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1조 1,309억 달러로 세계 최대 (2019년 2월)

- 중국은 미 국채 22조 276억 달러 중 5.1%, 외국이 보유한 미 국채(4조 246억 달러) 중 **28.1%인 1조 1,309억 달러**를 보유한 미 국채 최대 보유국

※ 미 국채 보유 순위: 2위 일본(1조 724억 달러), 3위 브라질(3,070억 달러)

- 2001년 2월 이후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과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간 상관계수는 약 **-0.88**로 높아,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할 경우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음.

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및 미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



주 :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월말 증가 기준
출처: 블룸버그



□ 중국이 실제로 미 국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

- 중국의 미 국채 일괄 매각은 미국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으나,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될 경우 **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촉진**해 미 국채 매각 효과는 반감될 수 있음.
-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은 대외 부채가 많은 **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**은 높이지만, 안전자산인 **미 국채 수요는 증가**시켜 국채 매각 효과 상쇄
-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이 금융 시장 안정 명분으로 4조 달러 넘는 자금을 투입한 선례 등에 비춰볼 때,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경우에도 **양적완화를 통해 국채 매입이 가능**하다는 평가
- 중국의 높은 대미 수출 비중을 고려할 때, 미 국채 매각에 따른 **금리 급등**으로 **미국 내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**되고 **달러 가치가 하락**하면 오히려 **중국 수출 지표는 더 타격**받을 수 있음.

3. 기타 비관세 장벽 강화

□ 미국산 제품 구매 중단 ·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비관세 장벽 강화 가능

- 현재 중국은 협상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나,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경우 **비관세 장벽 강화**로 무역 분쟁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상존
- 항공기 등 **미국산 제품의 구매 중단** 및 불매 운동, **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**, **위안화 절하**, **중국 기업 보조금 확대**, **미국 여행 제한**, **자본시장 개방 지연**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활용 가능성 제기
- 지난해 **애플**의 중국 매출액은 460억 달러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, 중국은 애플 제품에 중국식 GPS(베이더우) 장착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판매 금지 등으로 제재 가능
- **블룸버그**는 **농산물**의 경우 브라질 등 여타 국가로부터 **대체 공급처가 확보**돼 8월 전에 760만톤 규모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도, 또한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구입 계획이 있던 **보잉사 비행기**를 **유럽의 에어버스**로 대체 구매 가능
- 이밖에 하이엔드 반도체 제작 등에 쓰이는 **희토류**는 **중국**이 **세계 생산량의 95%**를 점하고 있어 중국이 **희토류 수출을 금지**할 경우 미국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